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송림사 우회루 단청의 박락된 모습.

## 백태 끼고 뒤틀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문화재청이 화재와 해충으로부터 목조문화재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방염·방충 도포작업이 오히려 목조문화재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사찰 스님들은 목조문화재가 썩어가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현재 전국 사찰에서 진행 중인 방염 방충제 도포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더이상 훼손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김제 귀신사 대웅전, 익산 송림사 보광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 등을 본지가 10-11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사찰에서 백태가 끼고 목재가 뒤틀어지며, 단청 박락 등의 문양과 색이 퇴색되면서 바스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 피해 사찰 스님들에 따르면 목조 건물들에는 6년에 한번씩 방염·방충제가 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문화재전문가는 방염 방충작업을 실시하는 해당업체가 약제를 섞은 비율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두껍게 도포작업을 하여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건물의 단청문양이 원형을 잃었고, 벽화는 퇴색되어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식물(회화도) 부식이 심하고, 도포작업 후 6-7개월이 지나도 마루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촉촉이 젖어 있을 정도로 습기가 많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98년도에 단청이 박락된다'던 예견은 수습하여 약품이 보원된 바 있다. 업체에서 약품을 과다하게 도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소에 원인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결과는 1년 후에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도 '방염 방충 작업 시 목재 및 해충의 종류, 사용목적, 용도 등에 따라 약제와 방법을 다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무재질을 손상시키고, 습기의 흡인성이 커지

며, 금속류가 부패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장 정각삼님은 "목조문화재 보존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w@buddhanews.com

## 잊어선 안될 '火宅' 교훈

지금 세계는 화염에 싸여 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나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로 보이는 과격 이슬람 자살테러단이 민항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을 강타한 이번 참사는, 곧장 CNN 전파를 타고 전세계 가정의 안방으로 파고 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경악과 분노라는 또 한번의 대폭발을 일으켰다.

만약 헐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면 분명 '리얼리티'를 문체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어떤 재난영화나 전쟁영화보다 더 참혹한 광경을 연출했다.

분노는 핵폭발 이후의 버섯구름처럼 증폭되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은 미국 심장부 강타'라는 헤드라인을 '미 전쟁수준 보복 선언', '보복 공격 임박'으로 바꿔 달아 나갔다. 테러리스트는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쟁불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후 규명에 앞서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들의 진혼을 위한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의 존엄을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숨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지 그 비행기를 탔다는, 그 건물에 출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인사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생명은 재물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내 생명이 어릴 때 죽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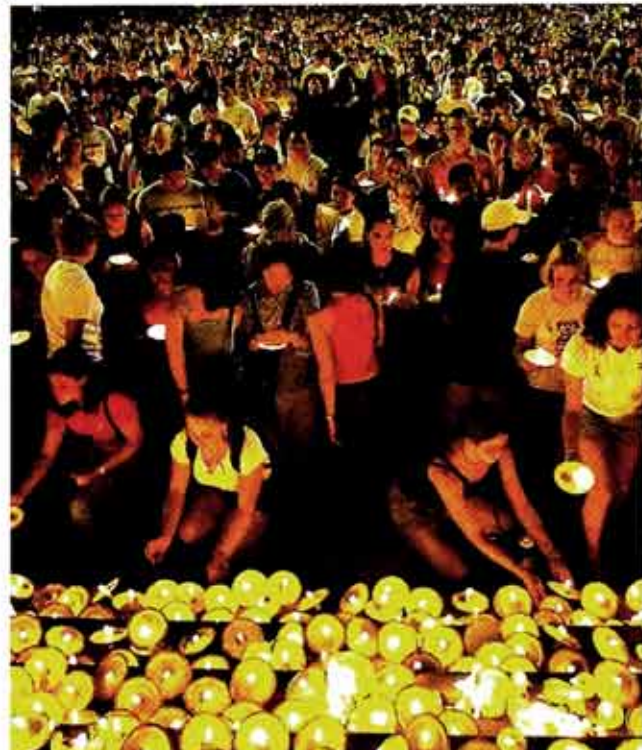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새겨들을 행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미 스러진 생명의 그 지고한 가치를 생각하면 분노와 보복만이 그들의 혼을 위무할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사 이후, 야수와 천사의 속성을 함께 지닌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희생자들에게 눈물 머금은 꽃을 바치는 시민들과 피의 화요일'을 환호하며 춤을 추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끝없이 폭발 장면을 반복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그래픽 화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매스컴과 그것에 '관음증(看情)'으로 반응하는 시청자라는 이름의 인간에게도 양면성을 본다.

원인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견디면서 드러난 문명간의 갈등, 미국의 패권주의,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오랜 반목 등. 물론 그것을 가리고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은 유명한 <법화경>의 화제에 비유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두면 공멸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입장을 심본 해아리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넌다. 장전 상태인 증기의 폭발이 떨어질, 어딘지 모를 그곳에 갇혀난 새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이라도 상기해 달라라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원수조차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운제학(취재 2부 부장)



촛불추모 동시다발 테러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안타깝게 하고 추모하는 행렬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1일 밤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켜며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기도를 올리고 있다.

## "생명살상 용납될 수 없는 악행"

### 정대 스님 등 종교지도자 '美 참사' 담화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불교종단을 비롯한 천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는 12일 미국테러사건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전쟁 같은 더 큰 불행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 정부가 습격불기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스님)는 미국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생명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라며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침착한 마음을 되찾아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12일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폭력은 폭력의 순환만을 증가시킬 뿐이다"며 "이번 사

건을 계기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증오의 마음을 국가차원에서 다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원 목사도 "은 인류가 평화를 위해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은 지를 연구해야 하며 특히 종교인이 노력하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2·3·8면 김원우 기자

## 외규장각 도서반환 서명운동

### 전등사, 10월 12~14일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강화 전등사주지 재계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도서반환을 기원하기 위한 2만개의 동불을 밝히고, 전사한 프랑스군을 위한 위령비 건립도 추진한다.

전등사는 병인양요(1866년 10월11일-10월26일)가 일어났던 시기인 10월 12-14일 전등사 대웅전과 강화읍 사거리 등에서 학술, 전시, 행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프랑스에 약탈

당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외규장각 도서, 왜 반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프랑스 도서에서 약탈도서를 최초로

한영우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봉정사·용문사

## 고려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화엄종의 근본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능통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및 배흘림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화천사 불경보관대인 운장대가 있는 예천 용문사도 참배합니다.

- 출발: 9월22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5만5천원(초식·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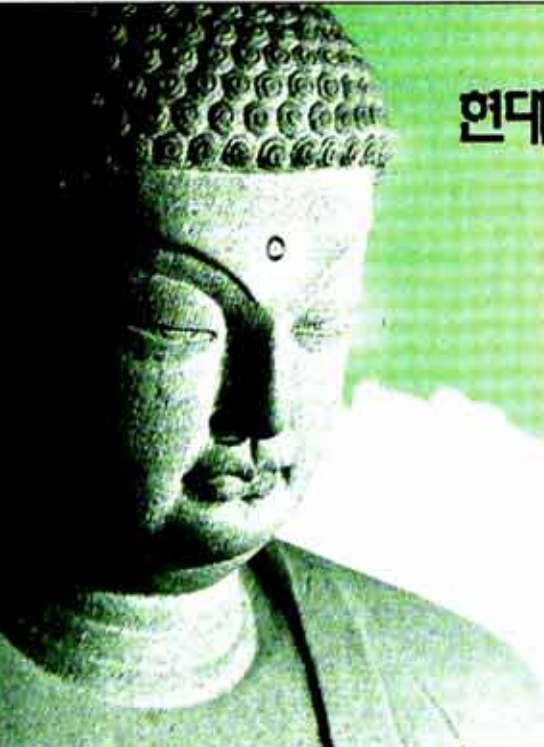
## 장군 죽 비

○비상사 대비 지방 분산 수장 국가유물 나 홀로 집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은 또 다른 도둑. (2면)

○미국 테러 참사가 말하는 바, 신의 이름으로든 자유의 이름으로든 생명 유린이라는 점에서 죄악이다. (3면)

○'복' 구걸하는 불교는 이제 그만. 선업도 악업도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 복 많이 지읍시다. (9면)

○수덕사 용남도와 손잡고 토종 치어 방생. 토종 어종 방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3면)



## 스님 종교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지는 부다피아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지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선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영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책자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할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지여러분이 보여주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 특별시혜

초기 연회비 면제  
9월 1일-10월 31일 가입자는 S-Oil 4천원 주유부품 증정

- 신속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 신속2 무료알인 서비스
- 신속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통소니안보험
- 신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 신속5 스피드 카드로

카드사업에 동참아일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아래서 제출)

